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주소 : Alameda Santos 700, CONJ 81,82, Ed.Trianon Corporate, CEP 01418-100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zil

TEL : 55-11-3175-3030 / FAX : 55-11-3175-3031 / E-mail : saopaulo@kotra.com.br

호조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 370130 평면상 사진플레이트 그밖의 플레이트와 필름(2,060.6%)
- 390690 아크릴의 중합체 기타 (30위, 109.0%)
- 392630 자동차 문손잡이(한국제품, 상반기 대 브라질 수출 22% 증가)
- 843149 유압 브레이커 및 크러셔 (14위, 7.4%)
-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34위, 97.1%)
- 848310 전동축 (26위, 55.9%)
- 851770 전화용 부분품 (2015년 1-7월 대 브라질 수출 품목 중 1위, 점유율 0.2%)
- 853224 세라믹유전체의 고정식축전기 (36위, 22.4%)
- 854370 LED 전구(한국제품, 상반기 대 브라질 수출 36% 증가)
- 854370 전기기기 그밖의 기기 (6위, 111.8%)
- 860799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의 기타 부분품 (22위, 21,342%)
-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28위, 12.9%)
- 900490 시력교정용 안경 기타(100.3%)
- 901380 액정디바이스 그밖의기기 (3위, 19.6%)

부진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 | | |
|--|--|
| 870899 농업용도에 적합한 트랙터의 부분품 (2위, -9.5%) |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0위, -9.7%) |
| 854239 집적회로 (4위, -29.1%) |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1위, -5.7%) |
| 852990 레이더기기 관련품 (5위, -63.0%) |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 (12위, -15.2%) |
| 854232 메모리 (7위, -54.4%) |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3위, -2.5%) |
|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8위, -57.5%) | |
| 870840 기어박스 (9위, -25.9%) | |

수입 제한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 | | |
|---|-----------------------------------|
| 39041010 PVC-S | 72202094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
| 40021919 부타디엔 고무 | 54023111, 54023119, 54024523 나일론사 |
| 72261900 규소전기강 평판압연 | 40111000, 타이어 |
| 72085100, 72085200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 39021020, 39023000 폴리프로필렌수지 |
| 72193200, 72193300, 72193400, 72193500, | 40112090 버스, 트럭용 타이어 |

특기 사항

1. 간략한 현지시장동향

-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 상승으로 수입 단가 상승
 - 2015년 9월 28일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1달러 = 4.1헤알을 기록

- 중앙은행의 적극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든데다가 환율상승으로 수입단가가 높아져 수입이 대폭 감소함
- 향후에도 해알화 가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기침체로 브라질 소매판매 부진 지속
 - 2015년 5월 소매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이는 2003년 8월(-5.7%) 이후가장 저조한 수치임
 - 4월과 비교한 5월 소매판매는 0.9% 감소, 11년 만에 처음으로 월별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
 - 5월까지 최근 12개월 소매판매는 이전 기간 대비 0.5% 감소
 -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둔화, 고용환경 및 소득수준 악화, 개인 신용대출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을 등으로 인해 올해 연간 소매판매가 지난해보다 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5년 1~8월 누적 브라질의 수입은 12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 감소함
 - 환율 급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수입 수요가 감소함
 - 수입업체들은 환율 상승비용을 최종 소비자에 전가 또는 브라질산 제품으로 대체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나 단기간 내 환율 급등으로 인해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15년 1~8월 누적 브라질의 수출은 1283억 달러를 기록하여 1541억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함
 - 환율 상승 여파로 수출업체가 다소 활기를 되찾고 있음. 그러나 수출기업의 생산품 역시 다수의 수입산 부품이 사용되므로 생산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2. 호조품목 선정사유

- 한국산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의 기타 부분품
 - 2015년 1~7월 누적 對브라질 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1,342% 증가했으며 전동축(848310)과 차동장치(870850) 역시 동기간 전년대비 각각 55.9%, 12.9% 증가했는데, 이는 현대로템의 싱가포르주 아라라과라시 투자진출로 철도 차량 부품 수입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어 올해와 같은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전화용 부분품
 - 한국의 對브라질 최대 수출품목으로 2015년 1~7월 누적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0.2% 증가, 액정디바이스(901380)의 수출은 동기간 19.6% 증가함. 이는 브라질 스마트폰 시장의 호황으로(2015년 1분기 판매, 전년동기대비 33% 증가), 부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올해 하반기 휴대폰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저조한 편이나, 첨단기능 탑재 모델, 경제적인 단말기 모델 등 다양한 층의 소비자를 겨냥한 모델을 출시하는 등의 불황 극복을 위한 휴대폰 제조사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2016년에는 휴대폰 판매 회복이 기대됨
- 시력교정용 안경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로 수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도 그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 중국산 900490 제품의 경우 2018년 10월까지, 370130 제품의 경우 2020년 3월까지 반덤핑 관세 조치 시행 예정
- LED 전구
 - '15년 상반기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한 2억 1700만 달러를 기록. 동기간 한국제품 수입은 840만 달러로 전년동기 35% 증가함. LED 전구는 공공조명으로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정부가 PPP(민관합동프로젝트)를 통해 발주하는 공공조명 설치 사업수요가 늘어나면서 LED 전구 수요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자동차용 플라스틱 손잡이
 - 한국은 對 브라질 1위 수출국(시장점유율 14.57%)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621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수출함. 현재 브라질에는 플라스틱 자동차 문손잡이 현지 생산이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출 호조가 예상됨

3. 현지 진출 시 유의사항

없음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주소 : Av. Nueva Providencia 1901, Piso 12, Providencia, Santiago, Chile
TEL : (56-2)2362-9991 / FAX : (56-2)2204-9833 / E-mail : yuri@kotra.or.kr

호조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220210 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220290 기타 음료
271113 부탄(액화한 것)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283640 탄산칼륨
390110, 390190 폴리에틸렌
551219 기타(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
840211 보일러(water tube)
840290 보일러
842121 정수기 필터

850423 유입식의 변압기(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
초과의 것)
851712 기타 전화기·영상 전화기
890120 선박(탱커)
902214 기타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
용의 것)
902710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
902790 마이크로토움 및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903039 기타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
사용의 기기(기록장치가 없는 것)

부진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870323, 870322, 870332, 870321 불꽃점화식의 왕복
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차량
852871 디스플레이
401011 가황 고무의 컨베이어 또는 전동 벨트

854460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271019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조제품

수입 제한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비료 및 살충제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방사능 물질
무선통신장비

특기 사항

1. 간략한 현지시장동향
 - 칠레 중남미에서 1인당 GDP(14,911달러, 2014년 기준)가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60개
국과 22개의 FTA를 체결하는 등 시장 개방
 - 칠레 경제의 근간이 되는 광산업(GDP의 15%, 전체 수출규모의 60%이상)의 부진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
고 있음.
 - '14년 낮은 경제성장률(1.9%)과 수출규모 급감에도 불구하고 현지화(peso)가치 하락(US\$1=CLP693,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내수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
 - 하지만 최근 3개년('11년-'13년) 동안의 빠른 경제성장(평균 5%대)으로 중산층 비율 증가, 이에 따라 의료,

건강식품, 전자기기 등 소비재 위주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기준, 332억 달러 수입(-13.58%), 388억 달러 수출(-13.24%)로 작년보다 수출입규모가 크게 감소

2. 호조품목 선정사유

- 보일러
 - '15년 상반기 수출규모 전년대비 평균 150% 상승, 2013년도 이후 우리기업의 주요 화력발전소 수주가 이어짐에 따라 증기 보일러 수요 증가 예상
- 영상기기 및 스마트기기
 - 2014년 기준, 인구 100명당 휴대폰 보급률은 132.2%로, 휴대폰 이용자 수보다 휴대폰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
 - 중남미 타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 및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로 휴대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주요 통신사(entel, movistar)조사 결과, 칠레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 및 기능보다는 가격에 따라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됨, 각 통신사별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인 휴대폰 브랜드는 모토로라, 소니로 나타남
 - 따라서, 가격경쟁력 있는 스마트기기(휴대폰, 태블릿 등) 및 영상기기를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진출 기회가 있는 시장으로 판단됨
- 의류, 섬유
 - 칠레 의류시장은 '15년 8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5.1%증가, 1월에서 8월 누적증가율은 7.3%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
 - 특히, 여성의류의 2015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스포츠의류 소비는 중남미 1위로 집계됨, 최근 스포츠의류를 일상복과 함께 입는 애슬레저(Athleisure)룩이 유행함에 따라 관련 제품 수요 증가
- 의료기기
 - 칠레 연간 의료기 지출은 10년 내 GDP의 9.2%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의료기기 및 소모품 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약 5억불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칠레인의 생활수준 및 개인 소득 증가에 따른 질 높은 생활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에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전망도 매우 긍정적임
 - 또한 2015년 내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8개의 공공 의료기관 건설계획 하에 현재 4개의 프로젝트가 입찰을 진행 중이며, 10개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발주예정, 의료기관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수기 필터
 - '15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대칠레 정수기 필터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 중산층 확대, 소득 증가로 질 높은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비만인구 증가에 따른 칠레보건부 주도의 건강캠페인 활성화로 건강한 식수에 대한 수요증가

3. 현지진출 시 유의사항

- 칠레는 인구 1,800만 명의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하는 바이어가 처음부터 대량주문을 하기 보다는 다품종 소량주문이 일반화되어있음. 첫 거래를 시작으로 반응이 좋으면 확대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소량 주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칠레는 6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완전 개방 자유무역국가로, 경쟁이 치열하므로 바이어가 같은 제품을 가지고 가격경쟁을 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점유하려는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거래 초기부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바이어의 제품 유통능력 및 대고객 서비스 능력 등 사전 검증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칠레는 타 중남미에 비해서도 영어에 약한 국가로서 간단한 영문 서신교환은 가능할지 몰라도 상담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바이어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음.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려고 할 때는 통역원을 대동하는 것을 추천